

국어 영역

정답

1	⑤	2	④	3	②	4	⑤	5	②
6	①	7	④	8	②	9	③	10	①
11	①	12	①	13	⑤	14	③	15	④
16	①	17	①	18	⑤	19	④	20	④
21	③	22	③	23	⑤	24	③	25	③
26	①	27	②	28	③	29	②	30	③
31	④	32	④	33	④	34	⑤	35	⑤
36	②	37	②	38	②	39	⑤	40	③
41	⑤	42	①	43	④	44	③	45	⑤

해설

** 화법 **

1. [출제의도] 대화 원리 이해하기

㉠은 학생과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대화에서 잘못 이해한 것을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이다.

2. [출제의도] 언어 예절에 맞게 대화하기

대화할 때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수고하세요.'는 더 수고하라는 표현이기 때문에윗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출제의도] 공감적 듣기 적용하기

㉠에서 '둘이 내기를 했다 보구나.'는 내기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고, '어서 말해 보렴.'은 대화를 격려하는 말이다.

4. [출제의도] 공감과 배려의 대화하기

㉠은 상대의 행동을 비난하는 말이다. 배려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태도로 반응해야 한다. '너처럼 욕심을 부리면 될 일도 안될 거야.'는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이 아니다.

5. [출제의도] 대화의 격률 이해하기

철수는 가영의 말을 가로채어 상대의 의사 표현을 막고 있다. 대화의 원리 중, 순서 교대의 원리에 따라 상대가 말하는 동안 끼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반응해야 한다.

** 작문 **

6. [출제의도] 글 쓸 내용 계획하기

선생님께 동아리 담당 지도교사를 부탁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는 과정이다. 학생은 작성할 글의 대강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글쓰기 표현 전략을 고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탐색 및 신뢰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7. [출제의도] 제시 자료 해석 및 활용하기

(가)-1은 동아리 명칭 비율에서 외국어가 고유어보다 많이 쓰이는 것을 나타내고, (나)에서는 언어의 소멸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고유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의미 전달에 더 효과적이라는 정보는 없다.

8. [출제의도] 개요 작성 및 수정·보완하기

(가)와 (나)의 개요 중간 II-2에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소개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 새롭게 추가한 내용은 없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여유로움'과 '바빠짐'으로 대조를, '우리말 사랑'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가을'을 통해 계절을 드러내고 있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문장의 주어인 '언어 사용 실태 조사'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문법 **

11. [출제의도] 음운 체계 파악하기

'h'는 저모음(개모음), 'k'는 중모음(반개모음)으로 'h'는 'k'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 혀의 높이를 낮춰서 발음해야 한다.

12. [출제의도] 음운 규칙 이해하기

화자가 빗이[비지]로 발음해야 할 상황에서 [비시]로 발음하여 청자가 빗이[비시]로 잘못 이해한 상황이다. 이는 앞말의 받침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가며 나는 발음을 잘못 발음하였기 때문이다.

13. [출제의도] 한글맞춤법의 원리 이해하기

나-2의 '반드시'는 '반듯-'을 어근으로 볼 경우, 여기에 '-이'가 붙어서 '꼭, 기필코' 등의 의미를 지닌 말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는 어휘화된 산물로 판단하여 소리는 대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고유어와 한자어의 특징 이해하기

(다)의 각 어휘들은 그 세분화된 의미가 모두 다르므로 문장 속에서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15. [출제의도] 어휘의 양상 이해하기

(가)에서 (나)로의 변화는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면서 직업의 명칭이 변한 사례이다.

** 인문 **

□ 출전: 최연식 외, 『경국대전』과 유교국가 조선의 예치

16.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둘째 문단에 따르면 경국대전의 편찬 의도는 '시대가 변하더라도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었다.

17.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조선이 근대적인 법이 부재한 사회였는지에 대한 물음이 서론에 제시되었으므로 결론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한 비교하기

지문의 세 번째 단락에서 최항은 덕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보기>의 한비자는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참작'의 사전적 의미는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서 알맞게 고려함'이다.

** 기술 **

□ 출전: 박태현, 『영화 속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20. [출제의도] 도식화 자료를 통해 이해하기

㉢는 PCR 증폭 단계의 셋째 단계로, DNA 중합 효소와 뉴클레오타이드 용액을 첨가하고 온도를 섭씨 74도 정도로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어떤 물질도 첨가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21. [출제의도] 핵심 내용 적용하기

지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DNA 가닥의 수는 매 주기마다 두 배씩 증폭된다고 했으므로 3번의 주기가 반복되면 DNA 가닥 수는 8배로 증폭된다.

** 사회 **

□ 출전: 홍성욱, 『패놉티콘: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22. [출제의도]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둘째 문단에서 벤담의 패놉티콘이 당시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정보는 없다.

2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역감시는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이 오히려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언론에 공개하여 공직자들의 비리 유무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자료 활용을 통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A]에서는 정보 수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고, <보기> 자료는 정보를 잘 활용하면 이로운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 공개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양날의 검'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한쪽만 보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라는 비판적 고찰을 드러내고 있다.

** 과학 **

□ 출전: 최완섭 외, 『고교생을 위한 물리학』

25.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과정 파악하기

물체의 원운동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우주에서 물을 여과하는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거대한 우주 정거장의 건설과 회전시키는 방법을 의문형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26.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

둘째 문단을 통해 볼 때, 구심력과 등속직선운동하려는 관성이 물체의 원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원심력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가상의 힘이 다.

27. [출제의도] 핵심 정보 적용하기
우주정거장 외곽 구조물 안에 위치한 물은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중력처럼 인식되어 ㉠으로 흐른다.

**** 예술 ****

□ 출전: 권송택 외, 『음니아르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넷째 문단에 따르면 변격 선법의 중심음은 중지음의 3도 위의 음이므로 중지음보다 항상 높은 음이다.

29. [출제의도] 핵심 정보 적용하기
주제부 악보에는 하이포-리디아 음역의 ‘나’음이 사용되지 않았다.

30.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 파악하여 적용하기
㉠중지음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로부터 5도 위의 음이 ㉡중지음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함수에서 x값에 따라 y값이 결정되는 것과 그 관계가 가장 유사하다.

**** 현대소설 ****

□ 출전: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31.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는 조 선달이다. 조 선달은 (가)에서 허 생원의 과거 회상 이야기를 맞장구치며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에서는 허 생원과 동이가 중심인물이 되면서 대화의 중심에서 빠지게 된다.

32.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이해하기
허 생원은 가을이 되면 정착하겠다는 조 선달의 말에 ‘옛 처녀나 만나면 다시 살까’라고 하며 말한다. 옛 처녀를 만나는 정착의 이유를 허 생원은 개울에서 동이가 자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 떠돌이 허 생원이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되는 데 필요한 시련의 공간이 고개이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하기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질문과 대답은 중심인물인 허 생원과 동이의 관계를 밝히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가치관과 잘못 연결 지어 감상하고 있다.

**** 고시가 ****

□ 출전: (가) 월명사, 『제망매가』
(나) 길재의 시조

34. [출제의도] 형식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향가, (나)는 시조로 시가 마지막 부분에 ‘아아’,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5.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시구의 의미 이해하기
㉠은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고려 왕조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 갈래 복합 ****

□ 출전: (가) 김소월, 『가는 길』
(나) 이규보, 『이옥설』

36. [출제의도] 갈래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서정 갈래로 화자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작가가 설정한 임의의 자아이다. (나)는 교술 갈래로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므로 화자는 작가 자신이다.

37.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부사 ‘다시’는 화자의 ‘머뭇거림’의 정서를 드러낸다. 떠남의 결단을 내린다는 감상은 <보기>의 진술과 맞지 않다.

38.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및 기능 파악하기
㉠을 방지하여 일부 재목들이 썩었고, 결국 행랑채를 수리하게 된다. 따라서 ㉡은 문제 상황을 유발하는 계기이다.

39.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설은 사물의 유사점에 근거하여 사고를 확장하는 유추의 과정이다. <보기>에 따라 글을 이해하면, A(행랑채를 수리한 경험)→B(잘못됨을 알고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C(부패한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C는 유추를 통한 적용의 결과이지 앞 내용의 반복이 아니다.

**** 고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40.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행동 파악하기
춘향은 방자가 다시 왔을 때 집에서 춘향 모와 마주 앉아 점심을 먹으면서 ‘너 왜 또 오느냐?’며 의아하게 생각하므로 방자가 다시 올 것을 모르고 있었다.

41. [출제의도] 표현 방식 파악하기
㉠에서 도련님이 춘향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것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고 있다.

42. [출제의도] 작품에 드러난 가치관 이해하기
<보기>의 춘향은 도련님이 부른다는 방자의 전갈을 듣고 할 수 없이 바로 가지만, [A]의 춘향은 그 말에 거절을 한다. 그러므로 [A]는 <보기>에 비해 춘향의 주체적인 태도가 부각되어 있다.

**** 희곡 ****

□ 출전: 이강백, 『알』

43. [출제의도] 연출 계획 파악하기
㉠에서 ‘시민들’은 ‘박물관장’에게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죽은 ‘시민 라’를 시청 광장으로 끌고 가는데 십팔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울먹이는 연기는 적절하지 않다.

44.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과 의미 파악하기
‘박물관장’은 ‘알’의 실체를 숨기고 시민들을 길들이고 있다. 따라서 ‘알’은 권력자가 권력을 이어 나가며 그의 횡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45. [출제의도] 설화와 비교하여 내용 파악하기
<보기>의 ‘임금’은 죽음이 두려워 평생 비밀을 말하지 않은 ‘복두장’에게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